

노인의 사회적관계 요인이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Influential Factors of Social Relation on the Change in the Depression Level of Elderly

-Longitudinal Analysis using a Latent Growth Model

김진훈

세모바퀴노인복지센터

Jin-hun Kim(jinhun@hanmail.net)

요약

사회적관계 요인이 노인의 우울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우울 수준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관계 하위요인이 노인의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자료(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의 3, 4, 5, 6차 자료를 활용 했으며, 65세 이상 4차시 모두 설문에 응답한 2,484 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 수준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별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고,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 모형을 통해 노인의 우울 궤적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회적관계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배우자유무, 가구원수, 친한 사람과의 만남, 경제활동 유무, 종교 유무 등이 노인의 우울 수준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 친한 사람과의 만남, 삶에 대한 기대감 등이 노인의 우울 수준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우울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지원의 필요함 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노인 | 사회적관계 요인 | 우울 | 종단연구 |

Abstract

Although social relation factors are confirmed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through the preceding studies, there has been no specific study on subfactors of social relation that influence the trajectory of depression level. Considering such limit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fluencing subfactors of social relation on the trajectory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The 3rd, 4th, 5th, and 6th-year data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 which were provid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were used in this study and 2,484 people aged 65 and over who responded to all the four-session surveys were used as final analysis subjects. In the result of the longitudinal study on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the individual depression level was confirmed become lowered over time, showing a positive change. Also, the conditional model of Latent Growth Modeling (LGM) was applied to identify specific social network factors that influence the longitudinal change of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itial value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was influenced by whether they have a spouse or not, number of household member, meeting with close people, whether they do economic activity or not, whether they have a religion or not, etc. and the rate of change in depression of the elderly was influenced by number of household member, meeting with close people, expectation about life, etc. Through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 need for specific programs and supports to continuously lower the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 keyword : | Elderly | Social Relation Factors | Depression | Longitudinal Analysi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1]. 행정안전부[2] 자료를 통해 노인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0.1%, 2013년 12.1%, 2018년 14.6%로 5년 단위 약 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는 생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기능이 감퇴, 퇴보 파괴되는 시기이며, 사회적 지위의 하락, 심리적 위축, 건강의 악화 등으로 사회참여의 폭이 제한되는 비참여의 시기라 할 수 있다[3]. 생애주기에 있어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정년퇴직과 실업 등으로 사회활동의 정도가 줄어들고 자녀의 출가 및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가족 내 심리적 지지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종교 활동, 친한 사람과의 교제 등이 줄어들어 상실감과 고독감에 빠지기 쉽다.

생애주기에 있어 노년기의 특성 변화가 크고,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년기의 육구파악 및 효과적인 문제 개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발 빠른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노인의 삶의 질,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노인과 관련한 문제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의 건강문제를 수반하는데, 이 중 우울 증상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정신장애로 유병율이 높은 질환에 속하고 있다[4].

노년기 우울에 대한 연구는 최근 중요한 연구 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관계 요인이 노인의 우울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5]. 즉, 노인의 사회적관계 요인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노인의 우울의 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연구되어진 횡단연구는 연구 시점에서의 변수간 관계를 제시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정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6]. 따라서 노인의 우울 수준 궤적(Trajectory)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변화궤적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반영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 수준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적관계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우울 예방에 필요한 실증적 제언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과 우울

우울(depression)은 지속적인 슬픔, 희망이 없는 상태 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7],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 또는 감정 반응을 의미한다[8].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감 경험률¹은 14.0%로 65세 미만 10.6%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7], 노인 자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자살률이 높은 배경에 우울이 관여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

최근 노인의 우울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의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종단연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정보센터(riss)에서 노인 또는 노년, 우울, 종단 또는 궤적으로 주제어 검색을 실시한 결과 학위논문 6편, 학술지 25편으로 검색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까지 3편, 2013년 이후 28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봉균, 하연주, 최승식[11]은 한국복지패널(2006년~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다. 독립변수로 신체적 요인(장애, 만성질환), 심리적 요인(자아존중감), 사회적 요인(사회적관계, 수급여부,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설정하여 분석

1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비율.

한 결과 노인의 우울 수준이 시간의 진행에 따라 감소하며, 신체적 요인은 우울과 종단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심리적 요인(자아존중감), 사회적 요인(사회적관계, 수급여부, 사회서비스 이용)은 모두 노인의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12]은 한국복지패널(2006년~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 사회적자본이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 상호 호혜성, 사회참여, 사회관계 만족도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상호 호혜성의 높을수록 우울감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며, 사회관계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우울 수준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현, 정성창, 장승민[13]은 고령화연구패널(2006년~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 부부의 관계만족도와 우울의 종단적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남편이 아내에 비해 부부관계 만족이 더 높았지만 만족의 감소율도 더 높았고, 남편이 아내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낮았지만 시간에 따라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난희, 방기현, 송혜숙[14]은 한국복지패널(2006년~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우울 변화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인 우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 우울 예측 요인은 여성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음주를 안 할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가족관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의 우울 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부적영향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울 수준의 종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한 변수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집단의 범위, 연구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6].

2. 사회적관계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관계는 사회적 유대 관계와 유의미한 사회적 접촉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15]. 그러나 사람마다 사회적 접촉의 정도와 활동 영역에 차이가 있어 사회적관계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 등의 개인차가 큰 노인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박탈 등으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우울감을 사회적 관계가 완화시키기 때문에 [16][17]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는 다른 요인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사회적관계 요인이 노인의 우울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18-20], 사회적관계와 우울 수준 궤적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관계 하위요인 설정을 위해 사회적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 또는 건강상태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순돌, 문진영, 김성원[21]은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특성으로 자녀와의 접촉빈도, 자녀와 지리적 접근성, 생존 형제/자매 수, 친한 사람과 만남빈도, 사회활동 참여개수, 사회활동 참여빈도로 설정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으로 자녀로부터 받은 지원, 자녀에게 제공한 지원, 자녀와 관계만족도, 배우자와 관계만족도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망 중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 개수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은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소영, 강민아, 조성일[22]은 사회적관계망을 배우자 유무, 동거 자녀 유무,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횟수, 형제/자매 및 친족과의 접촉횟수,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 수 등의 5가지 변수를 투입하여 잠재집단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을 통해 사회적관계망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적관계망 유형에 따라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의, 문현정, 임세현[23]은 사회적관계를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규모와 접촉빈도, 만족수준에 따른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친구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24]은 사회적 관계망 요인으로 결혼상태, 동거유형, 비동거자녀 만남, 지인 만남 횟수, 모임 참여 여부로 설정하여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인들과의 만남 횟수가 적을수록, 사별, 이혼, 별거, 미혼인 경우에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는 사회적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 또는 건강상태에 미치는 선행연구로 조사시점 상 횡단연구에 해당한다. 반면, 사회적관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노인의 우울 궤적을 살펴보고 있는 종단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수준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사회적관계 요인을 부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가현, 정성창, 장승민[13]은 사회적관계 요인으로 노년기 부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이주연, 하상희[25]도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을 사회적관계 요인으로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김진현[12]은 사회적 자본을 전해숙, 강상경[26]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김봉균, 하연주, 최송식[11]은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관계 만족, 국민기초생활수급 경험,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등으로 설정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사회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변수는 횡단연구 뿐만 아니라 종단연구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소영[27]은 대표적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으로 결혼상태, 동거유형, 가족, 지인, 사회활동 단체 및 모임 등을 들 수 있다고 했으며, 남기민, 정은경[28]은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결속을 통해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 친척, 친구, 동료, 지역사회 등이 사회적 관계망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하위요인이 연구자마다 상이한 것은 연구 목적의 차이와 더불어 노인의 삶의 모습이 노인들 사이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목적이나 범위에 따라 사회적관계 요인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족 요인[21-24], 친구요인[21-24], 종교 등의 집단 요인[21][24]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요인으로 배우자유무, 가구원수를 친구요인으로 친한사람과의

만남 횟수를 집단요인으로 종교, 경제활동유무 등을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우울 수준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관계 하위요인을 분석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의 우울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실증적 제언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및 모형

1.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노인의 우울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우울궤적 초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관계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우울궤적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관계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자료 및 조사대상

2.1 조사자료

노인의 사회적관계 요인이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관계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자료(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의 3차 4차 5차 6차 년도(2010년~2016년)의 자료를 활용했다. 이는 해당 자료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근자료로서 가장 최근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연구목적에 따라 KLoSA의 3차 조사 당시 만 65세를 넘은 대상으로서, KLoSA의 3차 4차 5차 6차 패널에 모두 응답한 2,48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했다.

3. 측정변수 및 분석방법

3.1 측정변수

연구문제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설정한 변수는 KLoSA 자료에 포함하고 있는 문항들로 구성했다. 구

체적으로 종속변수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LoSA 자료의 w03c142에서 w03c151까지 10개의 문항을 사용했으며(w03c146번, w03c149번 문항 역코딩), 문항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사회적관계 하위요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배우자유무, 가구원수, 친한 사람과의 만남, 경제활동유무, 종교, 삶의 기대감 수준 등으로 설정했으며 [표 1]과 같다.

표 1. 변수 및 변수 설명 N=2,484

| 구분 | 변수 (측정문항) | 변수 조정 및 설명 | |
|---|---------------|---|--|
| | 배우자유무 | 코딩변경 후 0=유배우자 1=무배우자 | |
| | 가구원수 | 가구원수 연속변수 | |
| | 친한 사람과의 만남 횟수 | 코딩변경 후 0= 일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1=분기 한두 번 ~ 월 한두 번 2=없음~ 년 한두 번 | |
| 독립 변수 | 경제활동유무 | 코딩변경 후 0=취업, 1=미취업 | |
| | 종교 | 코딩변경 후 0=종교있음, 1=종교없음 | |
| 종속 변수 |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감 | 코딩변경 후 0=높은 기대감(70-100점) 1=보통 기대감(40-60점), 2=낮은 기대감(1-30점), | |
| | 우울 | w03c142 ~ w03c151번 문항의 평균 사용 | |
| | | w03C142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평소일에 대한 귀찮고 괴로운 느낌 | |
| | | w03C143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정신 집중의 어려움 | |
| | | w03C144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우울감 | |
| | | w03C145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모든 일에 대해 힘든 느낌 | |
| | | w03C146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 | |
| | | w03C147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 | |
| | | w03C148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 | |
| | | w03C149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큰 불만없이 생활했다는 생각 | |
| w03C150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 | | | |
| w03C151 지난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_도무지 무얼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w03c146번, w03c149번 문항 역코딩) | | | |

3.2 분석방법

노인의 우울 수준과 우울 수준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적용했다. 이는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관찰치로부터 변화의 초기값(Intercept)과 변화율(Slope)을 추정하여 평균적인 변화궤적(Trajectory)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면서 변화내 개인차를 설

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AMOS 20.0V를 사용했으며, 모형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했다. 모형 평가를 위해 χ^2 , CFI, TLI, RMSEA 지수를 사용했으며, 표본 수에 민감한 χ^2 통계량은 참조 값으로만 활용하고, 지수의 유의수준은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이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30], 모형의 적합 정도를 해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KLoSA의 3차, 4차, 5차, 6차 패널에 모두 응답한 2,484명의 3차 조사시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84)

| 구분 | 변수 | M / N | SM/(%) | |
|-------|---------|---------------------|----------------------------|---------------------------|
| 독립 변수 | 연령 | 72.62 | 5.52 | |
| | | 배우자유무 | 유배우자 1,725 69.4 | 무배우자 759 30.6 |
| | 가구원수 | 2.47 | 1.30 | |
| | | 친한 사람과의 만남 횟수 | 일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1,683 67.8 | 분기 한두 번 ~ 월 한두 번 532 21.4 |
| | 경제활동 유무 | 없음~ 년 한두 번 269 10.8 | 취업 724 29.1 | |
| | | 미취업 1,760 70.9 | 종교있음 1,258 50.6 | |
| | 종교 | 종교없음 1,226 49.4 | 높은 기대감 532 21.4 | |
| | |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감 | 보통 기대감 1,251 50.4 | 낮은 기대감 701 28.2 |
| | 종속 변수 | 우울 | 1.82 | 0.57 |

2010년 3차 조사 당시 65세 이상 조사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은 72.62(5.52)세이며, 배우자유무는 유배우자 1,725(69.4%)명, 무배우자 759(30.6%)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2.47(1.30)명이며, 친한 사람과의 만남횟수는 일주에 한두 번에서 거의 매일이 1,683(67.8%)명으로 가장 많고, 분기 한두 번에서 월 한두 번이 532(21.4%)명, 없음 또는 년 한두 번이 269(10.8%)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유무는 취업이 724(29.1%)명, 미취업이 1,760(70.9%)명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종교 있음이 1,258(50.6%)명, 종교 없

음이 1,226(49.4%)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은 보통 기대감이 1,251(50.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낮은 기대감이 701(28.2%)명, 높은 기대감이 532(21.4%)명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설정한 우울 수준은 4점 리커트척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우울 평균은 1.82(0.57)점으로 나타났다.

2. 노인 우울 수준의 궤적

2.1 노인 우울수준의 무조건부 모형

노인의 우울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3차~6차 자료의 우울 수준 종단 자료를 투입하여 무조건부 모형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했으며, 모형 적합도 비교를 통해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최종 선택했다.

무조건부 모형은 독립변수 없이 분석하는 것으로 무변화모형은 종단 자료의 노인 우울 수준이 일정한 패턴 없이 ‘증가하다 감소’ 또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며, 선형변화모형은 종단 자료의 노인 우울 수준이 일정한 형태로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6]으로 측정모형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고, 무조건모형을 실시한 결과 각 모형에 따른 모형 적합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무조건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 모형 | χ^2 (df) | p | TLI | CFI | RMSEA |
|-------|---------------|------|------|------|-------|
| 무변화 | 1210.04(8) | .000 | .951 | .934 | .101 |
| 선형 변화 | 57.20(8) | .000 | .988 | .984 | .0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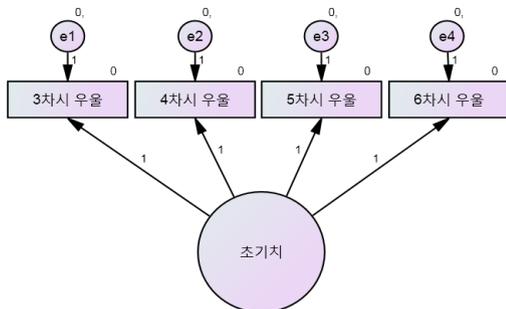


그림 1. 무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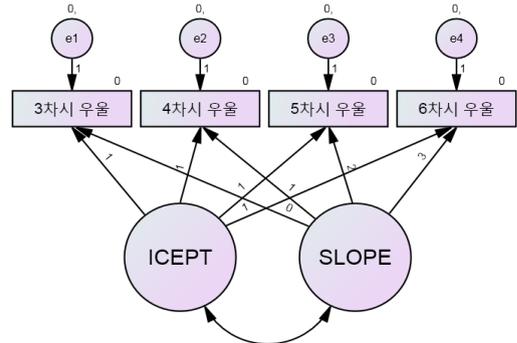


그림 2. 선형변화모형

무조건모형의 분석 결과 무변화모형의 경우 RMSEA 지수가 .08보다 크게 나와 모형 채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형변화모형의 경우 χ^2 (df), TLI, CFI, RMSEA 지수 모두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채택했다.

모형채택에 따라 채택된 선형변화 모형의 노인 우울 수준의 평균과 변화 추정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노인의 우울 수준 변화 추정치

| 모형 | 선형 변화 | |
|-----|----------|---------|
| | 평균 | 분산 |
| 초기치 | 1.823*** | .189*** |
| 변화율 | -.032*** | .013*** |

* p<.05, ** p<.01, *** p<.001

노인의 우울 수준 변화 추정치를 살펴보면, 노인의 우울 수준 초기값의 평균은 1.823점 분산은 .19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P<.001), 3차시 조사대상 노인의 우울 수준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10년 3차시 조사대상 노인의 우울 수준은 노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노인의 우울수준을 전체 평균값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율 평균은 -.032, 분산은 .01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P<.001), 3차 조사 이후 노인 우울수준이 4차, 5차, 6차로 갈수록 각각 -.032점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의 값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P<.001), 노인의 우울 수준의 변화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인의 우울

수준에서 산출된 변화율 값만으로는 집단의 변화 유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노인의 우울 수준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예측변수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2 노인 우울 수준의 조건부 모형

노인 우울 수준의 무조건부 모형 분석을 통해 조건부 모형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조건부 모형은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변수 중 사회적 관계망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조건부모형으로 분석했으며, 최종 측정모형은 [그림 3], 모형에 따른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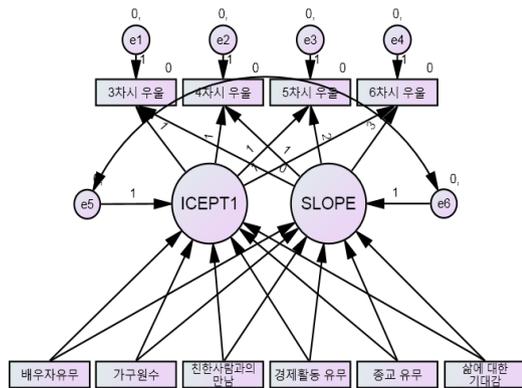


그림 3. 조건부 모형

표 5. 조건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 모형 | χ^2 (df) | p | TLI | CFI | RMSEA |
|--------|---------------|------|------|------|-------|
| 조건부 모형 | 273.629 (32) | .000 | .904 | .932 | .055 |

적합도 분석결과 CFI(.932), TLI(.904) 지수값이 모두 .90 이상이며, RMSEA(.055) 지수값이 .08보다 작게 나와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건부 모형에 따른 모형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 영향요인

| | | 추정치(B) | S.E. | 표준화된 추정치(β) | C.R. |
|------------|-------|--------|-------|---------------------|-----------|
| 배우자유무 | -> 초기 | 0.128 | 0.022 | 0.136 | 5.696*** |
| | -> 변화 | -0.009 | 0.009 | -0.037 | -1.066 |
| 가구원수 | -> 초기 | -0.027 | 0.008 | -0.081 | -3.398*** |
| | -> 변화 | 0.008 | 0.003 | 0.086 | 2.482* |
| 친한 사람과의 만남 | -> 초기 | 0.13 | 0.015 | 0.204 | 8.556*** |
| | -> 변화 | 0.016 | 0.006 | 0.096 | 2.759** |
| 경제활동 유무 | -> 초기 | 0.129 | 0.023 | 0.136 | 5.694*** |
| | -> 변화 | -0.005 | 0.009 | -0.018 | -0.517 |
| 종교유무 | -> 초기 | 0.047 | 0.021 | 0.054 | 2.269* |
| | -> 변화 | -0.013 | 0.008 | -0.059 | -1.692 |
| 삶에 대한 기대감 | -> 초기 | 0.016 | 0.015 | 0.025 | 1.069 |
| | -> 변화 | 0.015 | 0.006 | 0.089 | 2.566* |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우울수준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유무($\beta=.136$, $p<.001$), 가구원수($\beta=-.081$, $p<.001$), 친한 사람과의 만남($\beta=.204$, $p<.001$), 경제활동 유무($\beta=.136$, $p<.001$), 종교 유무($\beta=.054$, $p<.05$)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에 대한 기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배우자일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정도가 일주에 한두 번에서 거의 매일인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인의 우울 수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원수($\beta=.086$, $p<.05$), 친한 사람과의 만남($\beta=.096$, $p<.01$), 삶에 대한 기대감($\beta=.089$, $p<.05$)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유무, 경제활동 유무, 종교 유무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정도가 없거나 년 한두 번인 경우,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작은 사람일수록 우울 수준 변화율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무조건부 모형에서 노인 우울 수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과 연동하여 해석하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가구원수에 따라 우울 수준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정도가 없거나 년 한두 번인 경우,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적을 사람일수록 우울 수준이 큰 폭으로 줄어들

어 집단 간 우울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관계 하위요인이 노인의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 제공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3차 4차 5차 6차년도(2010년~2016년)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차수별 패널에 모두 응답한 만 65세 이상 2,48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 검증에서 첫 번째 노인의 우울궤적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선형변화모형을 실시한 결과 노인 우울수준 궤적이 초기치(3차)에서 4차, 5차, 6차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개인내적 우울 수준이 시간 변화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김봉균, 하연주, 최승식[11]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이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연구한 임중철, 주경희, 임병우[31]의 연구와 우울의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가현, 정성장, 장승민[13]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모형을 실시한 결과 노인 우울궤적의 초기 수준에 대한 예측 요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정도가 일주에 한두 번에서 거의 매일인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의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 3차 조사당시 개인 간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는 값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32][33].

세 번째 연구문제로 설정한 노인 우울궤적의 변화율 수준에 대한 예측 요인으로 가구원수, 친한 사람과의 만남, 삶에 대한 기대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가구원수에 따라 우울 수준의 격차는 더욱 커지며,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정도가 없거나

년 한두 번인 경우,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적을 사람일수록 우울 수준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집단 간 우울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년기 사회적 활동참여가 우울 완화나 노인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Glass et al.[32]와 Julien et al.[33]의 주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우울감이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개인내적으로 보면 우울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우울감 경험을 추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9]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단연구 기간인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나이를 5년 단위로 우울수준을 측정하고 6년 후인 2016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횡단연구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은 우상향하고 있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로 전체적인 우울수준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우울수준은 연령 증가에 따른 우울수준의 (+)변화보다 외부효과로 인한 우울 수준의 (-)변화가 큼으로 전체적인 노인의 우울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증가에 따른 우울수준을 낮출 수 있는 외부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해 횡단 변화의 요인연구가 이루어졌듯, 종단연구를 통한 종단 변화의 요인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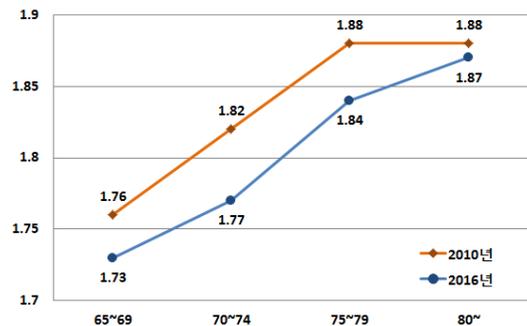


그림 4. 동일대상의 6년 뒤 우울수준의 변화
*도표에 제시된 연령은 2010년 기준임

둘째, 노인 우울궤적의 초기 수준에 대한 예측 요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정도가 일주에 한두 번에서 거의 매일인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횡단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회적관계 요인이 연령 증가에 따른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우울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본인 또는 사회적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요인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실천적 제언으로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의 한 축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역량인 지역사회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읍면동 단위 행정의 지원속에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에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경로당, 노인대학 등 기존의 실시되고 있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에 노인이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상품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다양한 욕구를 지닌 노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제언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관계 관점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목적이 경제적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어 진다. 즉, 노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은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 창출의 가치보다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가치 중심의 노인 일자리 보급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유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노인 우울궤적의 변화율 수준에 대한 예측 요인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구원수가 횡단연구 뿐만 아니라 종단연구에서도 노인의 우울수준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정책적 제언으로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출산 장려를 위

한 재정적 지원이라면, 더불어 노인의 우울수준을 낮추는 관점에서 다자녀가구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다인 가구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을 포함한 다인가구의 증가를 위해 가족의 기능성은 높이면서, 가족 부양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누진제도 등은 가구 단위로 되어 있어 한 가구에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다인가구의 경우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이 많아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인가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인 우울궤적의 변화율 수준에 대한 예측 요인으로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정도가 없거나 년 한두 번인 경우,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노인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 수준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집단 간 우울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정도와 삶의 기대감이 노인 우울수준에 부적 영향력이 있다고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초기값 분석에서 두 요인 모두 노인 우울 수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가 초기값을 기준으로 한 노인우울수준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기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초기값 변화율에 따른 노인 우울수준 궤적을 살피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KLoSA의 3차 초기치 값을 기준으로 노인 우울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관계 요인 변화에 따른 노인 우울 수준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연구를 통해 연령별 우울수준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수준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갭을 만드는 다양한 외부효과 요인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19], 남녀 집단 간[22] 사회적관 요인의 차이와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다면 더욱 구체적인 우울궤적에 대해 제언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생애주기에 있어 노년기 우울수준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사회적관계 요인의 중단적 영향요인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진훈, 고보선, “노인 가구 소비유형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노인복지학회, 제71권, 제4호, pp.477-502, 2016.
-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19.
- [3] 이민숙, 김나영,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4권, 제1호, pp.161-176, 2007.
- [4] P. E. Greenberg, R. C. Kessler, H. G. Birnbaum, S. A. Leong, S. W. Lowe, and P. A. Berglund, “The economic burden of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How did it change between 1990 and 2000,”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64, No.12, pp.1465-1475, 2003.
- [5] 최지민, 황선영, 김순은, “사회적 관계망과 고령자의 문제: 성별과 사회관계망 간 상호작용의 정책적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4호, pp.83-114, 2013.
- [6] 김진훈, “노인 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pp.339-349, 2019.
- [7] Beck, *Depression Inventory*, Philadelphia: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1978.
- [8] 고민석, 서인균, “노인의 건강상태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대한보건연구, 제37권, 제1호, pp.1-14, 2011.
- [9] 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 2018.
- [10] 전혜정, 김명용, “노년기 취업이 우울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의 성장,” *韓國老年學*, 제34권, 제2호, pp.315-331, 2014.
- [11] 김봉균, 하연주, 최송식,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중단적 연구: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제34권, 제1호, pp.115-132, 2014.
- [12] 김진현, “노년기 사회자본의 차이가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3호, pp.181-201, 2015.
- [13] 이가현, 정성창, 장승민, “노년기 부부의 관계만족도와 우울의 중단적 변화 사이의 관련성: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조사연구*, 제18권, 제4호, pp.25-59, 2017.
- [14] 이난희, 방기현, 송혜숙, “중단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 변화요인 분석,” *대한보건연구*, 제43권, 제3호, pp.13-25, 2017.
- [15] J. S. Norbeck, A. M. Lindsay, and V. L. Carrieri,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Vol.30, pp.264-269, 1981.
- [16] 장수지,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pp.75-100, 2010.
- [17] 강소량, 문상호,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 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3호, pp.271-298, 2012.
- [18] 김태면,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19] 이인정,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9권, 제3호, pp.35-50, 1999.
- [20] 한혜경, 이유리,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수준과 영향 요인,”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pp.805-822, 2009.
- [21] 정순돌, 문진영, 김성원, “고령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은퇴만족도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제30권, 제4호, pp.1145-1161, 2010.
- [22] 임소영, 강민아, 조성일, “한국 노인의 사회적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 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59권, 제1호, pp.281-308, 2013.
- [23] 임은의, 문현정, 임세현, “사회활동을 하는 농촌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제22권, 제3호, pp.89-109, 2014.
- [24] 박소영, “노인의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1호, pp.154-190, 2018.
- [25] 이주연, 하상희,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 우울, 삶의 만족도간 중단적 상호인과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과 성별다집단분석,” *상담학연구*, 제17권, 제1호,

호, pp.415-435, 2016.

- [26] 전해숙, 강상경, “노년기 우울궤적의 예측요인: 한국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韓國老年學, 제29권, 제4호, pp.1611-1628, 2009.
- [27] 박소영, “노인의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1호, pp.154-190, 2018.
- [28] 남기민, 정은경,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2권, 제1호, pp.325-348, 2011.
- [29] T. Duncan and S. Duncan,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Vol.35, No.2, pp.333-363, 2004.
- [30] L. Hu and P.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6, No.1, pp.1-55, 1999.
- [31] 임중철, 주경희, 임병우, “노인의 일자리참여율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7권, pp.29-50, 2012.
- [32] T. A. Glass, C. F. M. de Leon, S. S. Bassuk, and L. F. Berkman, “Social engagement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r life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18, No.4, pp.604-628, 2006.
- [33] D. Julien, L. Gauvin, L. Richard, Y. Kestens, and H. Payette, “The role of social participation and walking i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Results from the VoisiNuAge Study,” Canadian Journal on Aging, Vol.32, No.1, pp.1-12, 2013.

저 자 소 개

김 진 훈(Jin-hun Kim)

종신회원



- 2008년 7월 ~ 현재 : 세모바퀴노 인복지센터 대표
- 2008년 2월 : 탐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16년 8월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이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콘텐츠, 장애인 재활